한중 양국 전문대학의 산업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교류 협력 모형과 방안*

강일규**

목 차

Ⅰ. 서론
Ⅱ. 국가 간 인력 양성 제도 및 유형
Ⅲ. 인력 양성 교류 협력의 모형
Ⅳ. 주요 방안
Ⅴ. 결론

한글초록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전문교육기관인 전문대학 수준의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양국의 전문대학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간 실질적인 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은 선행 연구 중심의 이론적 배경으로 국가 간 인력 양성 관련 법적 근거, 관련 제도 및 수준별 유형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시

* 본문은 강일규 외,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의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스템 이론에 근거하여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수준의 인력 양성 교류협력 모형을 제시하고, 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형에 따른 주요 방안을 제시하여 양국 간 산업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모색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시사점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양국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국의 전문대학은 실질적인 공동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 추진은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신뢰 구축과 성공 사례 창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기관, 산업인력, 인력양성, 인력활용, 교류협력 및 모형

I. 서론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해왔고, 향후 각 영역에서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기능 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고급기술인력은 대부분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양성 공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중국 역시 고등직업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과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1]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다양한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수업연한의 다양화, 평생직업교육대학 집중육성, 전문대학생의 해외 취업 지원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의 어려움 중 하나는 향후 학습자원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2020년까지 졸업생 수가 급감하고, 전문대학을 통한 신규 인력공급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12).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큰 축인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의 하나로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학습자원의 확보 및 취업률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과 상호 협조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국에 소요되는 인력을 공동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은 과거 문화 혁명으로 인하여 교육기관이 피폐되어 인재가 끊어지는 심각한 현상을 겪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1) OECD는 고등교육기관을 크게 대학(universities)과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계에서 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non-university tertiary education)으로 분류하였다.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들은 고교 과정과 단기 고등교육과정을 혼합한 단기 전문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제공하는 폴리테크닉까지 폭넓게 포괄할 정도로 국가 간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단계 직업교육이란 일반대학 외의 고등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을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 지칭한다.

대 초기부터 중국 동남 연해 및 일부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서 신형 지방대학-직업대학이 등장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고등직업학교이며, 이러한 유형의 학교는 점차 발전하여 직업성 · 지방성 · 실용성 등의 특색을 지니면서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중국 고등직업교육의 급속한 발전은 한편으로 각 지역 경제 건설에 급박하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고등교육 구조의 개혁을 촉진하였다. 또한 경제 건설을 위하여 대량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였으나,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소리도 높다. 예컨대 설립 형식의 단일화, 이론 편중의 학습으로 실용 학습을 경시, 실제 활용 능력이 미약함 등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은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2]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산업 및 사회변동과 수요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상호 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다. 즉,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에 따른 양국의 동반성장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3] 구상은 한

2) 이러한 지적은 산동성 위해시 전문가 인터뷰에서 확인함.

3)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를 순방한 후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국무원의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관련 청사진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 포럼에서 재차 강조되면서 더욱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의 중점 사업으로 '5대 통(通)'을 제시했다. △'정책소통'-국가 간 발전전략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견을 조정하자. △'인프라 연통'-철도, 도로, 가스, 전력, 통신을 연결하자. △'무역 창통'-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어 변경과 항구를 단일 창구화하고 통관 비용을 낮추자. △'자금 융통'-필요한 자금은 AIIB뿐만 아니라 브릭스개발은행, 실크로드 기금

중 양국의 인적자원 분야에서 더 많은 교류 협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4]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시스템 이론을 근거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실질적인 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국가 간 인력 양성 제도 및 유형

1. 법적 근거

국가 간 인력 양성에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은「고등교육법」시행령 단서 조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고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에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하여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학위수여와 관련해서는「고등교육법」해당 조항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운용 등을 통해 조달하고,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위안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금융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 △'민심 상통'-매년 1만 명 상당의 중국 정부 장학금을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동 신청, 비자 간소화 정책 등을 실시하자 등이다(http://100.daum.net 검색일: 2018.7.18)

4)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관련 인프라, 무역, 금융 분야에서 많은 물적 · 인적자원의 수요가 있고, 이는 주변국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부지역 개발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과 함께 관련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2호)이 있었으나, 2008년 8월 1일에 폐지되면서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다. 그 결과 폐지된 위 규정을 토대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공동학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2. 관련 제도

첫째,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전략을 들 수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전략은 2012년 교육부가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출발하였는데, 주요 배경은 글로벌 개방 시대 고등교육 국제경쟁 심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해외유학생 확보 필요성 증대, 교육서비스 수지 적자, 교육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필요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3). 이 전략은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 인재를 유지하고, 국내 학생의 해외유학수요 흡수 및 국내대학 해외 진출을 통해 교육서비스 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10가지 세부 추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6-7).

둘째, 세계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세계로 프로젝트'는 전문대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국내 산업체에 우수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한 국가주도 해외취업 사업이다. 이 제도는 크게 전문대학생 맞춤형 해외취업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해외취업 프로그램, 해외 한국산업체 근로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3가지 유형이 있다(교육부, 2013: 6). 이들 유형은 국내 전문대학이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측면에서 중국교육기관과의 공동 운영이 표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제도는 전문대

학 맞춤형 해외 취업 프로그램은 전문대학생의 해외 취업 촉진을 위해 해외 산업체와 맞춤형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교포 포함) 대상으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중국 현지의 유학생을 확보해야 하는데, 신입생 모집뿐만 아니라 공동·복수학위과정을 통해 2~3학년 시기에 학생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

3. 인력 공동 양성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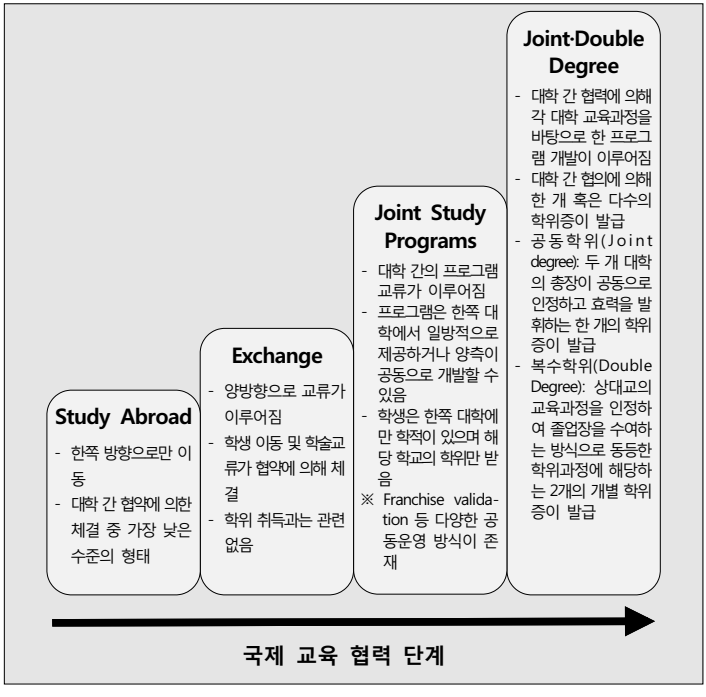
국가 간 인력 양성 교류협력은 수준과 단계에 따라 해외 유학(study abroad), 학생 교환(student exchange), 협력 프로그램(joint study program), 공동 · 복수학위(joint-double degree)로 구분할 수 있다(하연섭 외, 2014: 3).

첫째, 해외 유학은 다른 국가에서 교육 기회를 얻기 위한 개별 학생의 활동이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생이 직접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학습하는 형태를 말한다. 과거 발전도상 국가들은 선진국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 자국의 학술 · 기술 · 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젊은 인재들을 내보서 선진 문물을 배워 왔지만, 점차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구별하지 않고 그 나라의 사회 · 경제 · 문화를 깊고 넓게 연구하기 위한 유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학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복수학위과정이나 학생교환 프로그램과는 구별된다.

둘째, 학생 교환은 중등학교 또는 대학의 학생이 소속 학교의 협약 기관에서 유학(study abroad)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학생 교환은 해

외여행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모국 바깥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교환'이라는 용어는 협약 교육기관(partner institution)에서 학생을 받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협약 교육기관의 교환할 상대 학생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교환 프로그램은 단기교환 프로그램, 장기교환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참여 학생들은 학생비자를 받아서 체류한다.

〈그림 1〉 국제협력교육단계별 인력 양성 유형



자료: Joiman Network, 2014, "Guide to developing and running joint programmes at bachelor and master's level"; 하연섭 · 박인우 · 이원용, 2014, 『국내대학(원)의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질 관리 방안 마련』, 교육부. p. 3 재인용.

셋째, 협력 프로그램은 대학 간 협약에 의해 교육과정(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학생의 학적은 한 대학에만 존재하며, 학위수여도 학적이 등록된 대학에서만 가능한 교류형태로서 교과목 대여, 협력교육과정, 학점교류 등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협력 프로그램은 공동학위 프로그램에 비해 그 협력 정도가 다소 낮기 때문에, 협력 교육기관들이 학문·행정·실행 관련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넷째, 공동복수학위 과정은 복수의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각각의 대학 학위를 복수로 또는 1개의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는 형태이다. 공동·복수학위 과정은 대학 간 협약으로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여 각 기관이 인증하는 학위수여 방식으로 대학 간 국제협력 모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형태를 말한다(하연섭 외, 2014: 4).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준에 대한 협약은 각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양측 대학의 학위수여에 합당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교과목 대여(franchise)나 승인(validation)과 달리 공동·복수학위는 주도권을 공유하며, 개별 대학의 정체성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양측 대학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국내대학에 맞게 변형시켜 우리나라에 맞는 교과과정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내대학의 학위수여가 가능한 공동·복수학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교육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다음 유형은 국내법이 허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공동운영 형태인 공동·복수학위와 구분된다(하연섭 외, 2014: 5-6).

한편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유형은 〈표 1〉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franchise)가 한국 대학이 외국대학의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것이라면, 국외연구소 및 교육원과 국외분교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고, 트위닝(twinning), 복수 및 공동

학위 과정(double/joint degree), 그리고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은 대학들 사이의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프랜차이즈, 트위닝, 복수 및 공동학위 과정, 그리고 국외연구소 및 교육원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손희권, 2012: 7).

〈표 1〉 **고등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의 국제화 유형**

유형	주요 내용	제도여부
프랜차이즈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국내대학에서 외국대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위는 외국대학 명의로 수여	규제 없음
트위닝	A 대학과 B 대학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A, B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되, 학위는 A 대학에 의해서만 수여됨	규제 없음
복수·공동 학위과정	여러 국가에 있는 대학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양측 대학 모두로부터 학위를 받는 복수 학위과정을 개설하거나, 1개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	규제 없음
아티큘레이션	여러 국가에 위치한 대학 간에 학점 인정 관련 협정이 체결되어 이들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이 누적적으로 학위취득에 인정되는 유형	한중일 대학간 공동복수학위제도 운영
국외연구소 및 교육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 국내 학생 및 교원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국외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규제 없음
국외분교	국내 학교법인이 현지국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설립요건을 충족(현지국가 승인)하고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현지국가에 설립하여 경영하는 대학	교비회계 사용금지

Ⅲ. 인력 양성 교류 협력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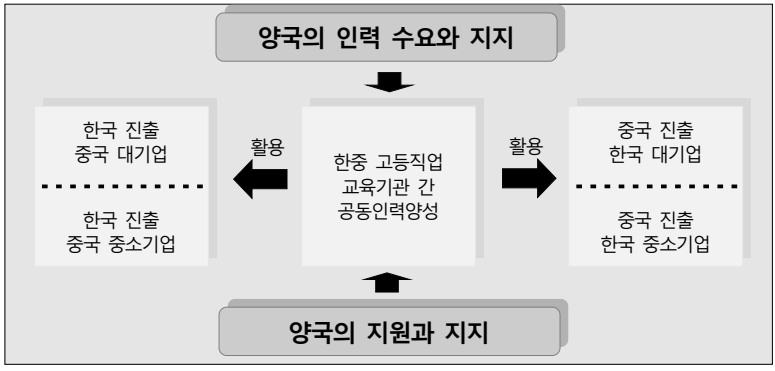
1. 교류협력의 모형

국가 간 교류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 있어서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모형을 통한 일반화 시도는 교류협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화 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 시스템 이론[5]에 근거하였다.

첫째, 한중 양국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다음의 그림과 같이 고급인력 양성의 한 모델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은 양 국가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은 양국의 인력 수요에서 공동 양성을 통한 인력 수급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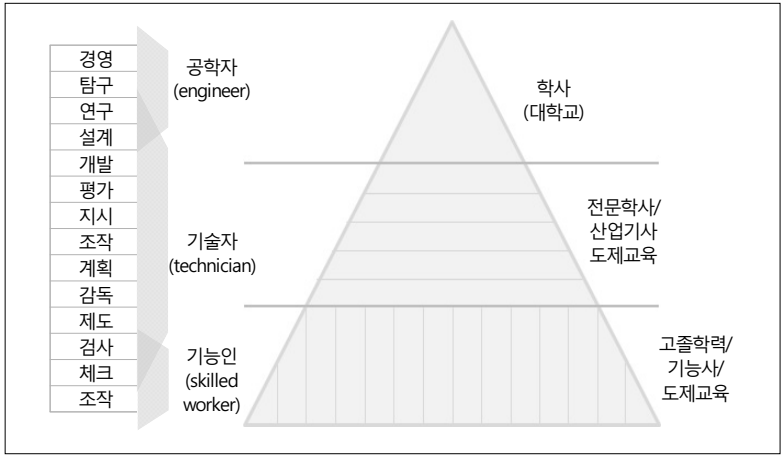
5) 시스템이론은 모든 조직과 행위를 시스템(체제)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기본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어떠한 시스템을 시스템접근, 시스템분석이라는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체제내·체제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밝히는데 적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론에서 시스템이라는 개념과 함께 시스템접근과 시스템분석이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 조광제, 1998,「유형별 체제이론의 특성과 교육행정에 대한 이들 이론의 시사점」,『교육학 논총』, 제7집; 강일규, 2002,「일반시스템이론에 근거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 모형 개발」,『직업능력개발연구』, 제5권 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림 2〉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기본 모형(안)



둘째, 인력 양성의 수준은 전문학사 수준의 기술인 양성이다. 산업인력은 다음의 그림처럼 기능인, 기술인, 공학자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 보면,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산업인력 공동양성은 기술인 수준의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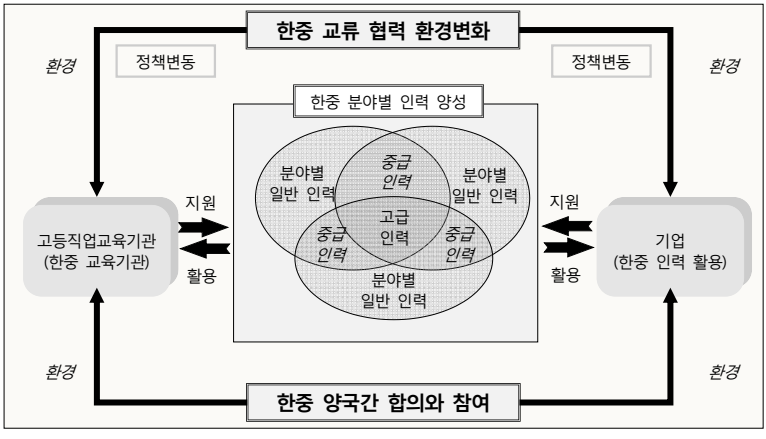
〈그림 3〉 공학자, 기술인, 기능인의 업무범위와 학력



자료: 이무근, 2004,『직업교육학원론』, 교육과학사, p. 40. 내용을 일부 수정 제시함

한편 이들 인력은 한중 양국 간 공동으로 양성하는 모형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각국의 전문가로 고급인력, 중급인력, 일반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상대국의 전문가로, 일반인력은 단순기능 등 노동력을 가진 인력이다. 중급인력은 자신의 전문 기술과 상대국의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의 인력이며, 고급인력은 자신의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 등 전반적인 실정을 이해하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분류에서 보면,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공동으로 양성되는 산업인력은 상대국 언어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전문 기술을 가진 중급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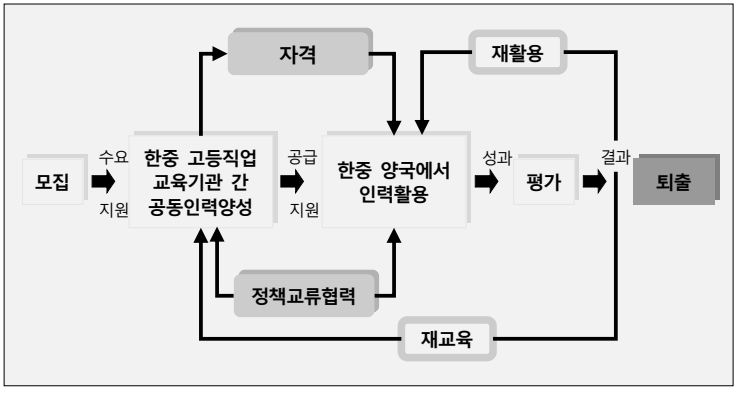
〈그림 4〉 한중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추진모형(안)



셋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과정별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인력 양성 및 활용은 일련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모집에서 양성 및 활용, 그리고 퇴출까지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모형의 한중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공동 산업인력 양성 및 활용 측면에서 보면, 우선 교육생 모집이 필요하다.

교육생은 산업 수요나 학생 자체 지원 등의 일정한 방식으로 모집이 가능하다. 한중 간 공동 인력 양성의 경우에는 수요를 고려한 주문식 혹은 맞춤식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모집 후 양국의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들을 양성하고, 관련 자격 취득이나 수료증 등 교육 결과에 대한 적절한 증서를 발급한다.

〈그림 5〉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인력 양성 · 활용 · 관리 과정 모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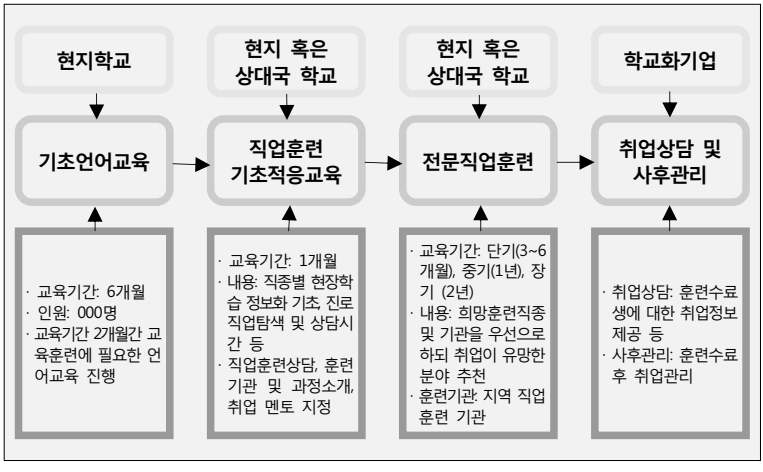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들을 수요로 하는 기업에서 활용하고, 일정 기간 후 평가를 통한 재교육 혹은 재활용이나 퇴출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상호 양국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인력 양성 표준(안)이 필요하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단계별로 일정 혹은 과정을 개설하여 각급 학교 및 교육과정에 응용할 수 있는 표준 모형을 통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언어 교육이다. 즉 상대국 언어는 학습 및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이는 각 교육생의 수준에 따라 교육기간 및 장소 등이 정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적응 교육이

필요하다. 기초적응은 양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및 전공 등에 대한 일정한 적응기가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교육훈련이 시작되고, 전공 교육은 각급 학교 및 수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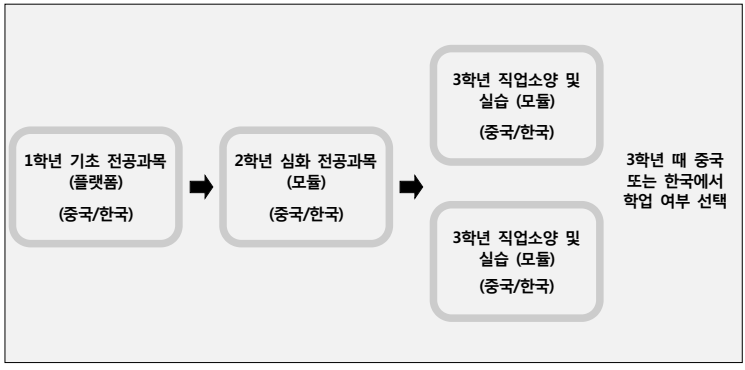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교육과정이 완료된 후 중요한 것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이다. 사후관리는 이들에 대한 진로상담을 통한 취업 및 진학지도라고 볼 수 있다. 사후관리는 양국의 관련 학교 및 상담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로는 물론 교육성과 등에 대한 관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인력 양성 과정 1(안)



이러한 표준 과정과 더불어 실제 양성 과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일정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 학교 및 과정별로 수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즉 교육기간 및 장소에 따라 전공과목 및 자격취득, 그리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양성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 학생, 기업 등이 협의하여 진행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도 중요하다.

〈그림 7〉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인력 양성 과정 2(안)



2. 방안의 방향과 전략

1)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동반발전은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용어에는 공생 발전, 동반성장 등이 있다. 공생 발전은 국내적으로 '다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 철학의 하나였다. 공생 발전에는 녹색 성장, 동반성장, 공정 사회, 친서민 중도 실용이 포함된다.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은 우리 사회를 자연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계층을 조화롭게 진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경쟁을 보장하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발전의 성과를 승자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씀으로써 시장경제를 진화·발전시키자는 의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이러한 동반·공생 발전 개념이 한중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중 간 동반발전의 기본적 전제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

한 영역으로 기능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필요가 있다. 즉 한중 간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도 동반발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동안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이상을 꿈꾸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전개를 보면 역사적·문화적·지리적·사상적·언어적 장애 요인이 감소하지 않고 커져 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경제 안전, 식량 안전, 건강 안전, 환경 안전, 개인 안전, 커뮤니티 안전 등을 포함하는 인류 안전 공동체(human security community)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6]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한중간 인적자원개발 분야도 동반발전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강일규 외, 2012: 23-30). 이러한 상호 존중 및 상생의 기본 전제는 양국 간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의 구체적인 과정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 큰 이념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일반적으로 국가 간 교류·협력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의미하며, 사람들에 의한 국경을 넘는 교류의 총칭으로서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사람·물건·자본·정보의 국제이동을 포함한다(히라노 겐이치로, 2004; 유상진 외, 2007: 1 재인용). 또 국제교류는 각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따라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국익을 위하여 경쟁하고 협력하는 총체적인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상진 외, 2007: 1 재인용).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한중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분야의 교류·협력'도 국제 교류·협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력 양성을 위한

6) 朴炳奭, 2012,「構建東北亞共同體的方向: 超越文化共同體而走向人類安全共同體」,『當代韓國』, 第2期, p. 24.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은 상위 개념인 국가 간 교류·협력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 간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은 최근 가조인된 한중 FTA의 정식 체결 등 상호 국가 간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확대된다면,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한 축인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는 인적자원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양성 등이 기능적 파급 효과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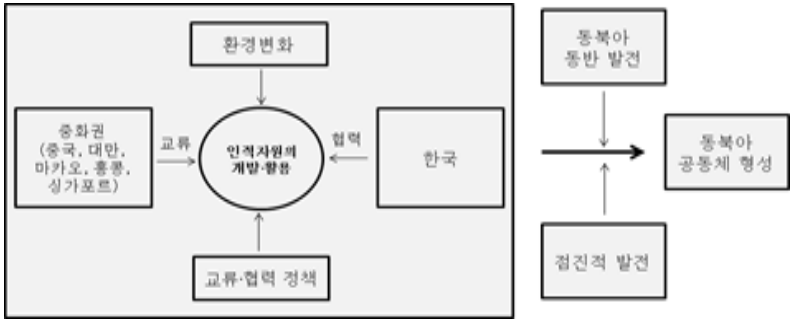
한중 관계를 볼 때,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양국의 제반 수준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의 산업발전이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상호 협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즉, 이를 통해 상호 고급인력의 수요에 공동 대응하여 동반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7)]

이를 위해서 상호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 등 교육

7) 다른 한편 한중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가 좁혀지고, 산업별 발전 수준도 좁혀지는 상황에서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의 확대는 한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즉 확대할 경우 중국의 탈법·불법 인력 이동이 확대되어 국내 인력자원 경쟁력 약화 및 국내 인력시장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하개발어젠다에 기초한 인력이동에 한정된 인적자원 교류·협력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과의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긍·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에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강일규·허영준·김유미·이윤진·이천우, 2014,『중국 양안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관 간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부는 장기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범중화권을 아우르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동반발전을 위하여 인력개발 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구 설치 혹은 기존 기구의 적극적인 활용, 중국(중화권) 진출 인력 양성 과정 운영, 중국(중화권)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정기적 학술대회 등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 등이 필요하다(강일규 외, 2014: 159-161).

〈그림 8〉 중화권과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교류·협력 방향



자료: 강일규·허영준·김유미·이윤진·이천우, 2014, 「중국 양안 간 인적자원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p.15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한편 양국 간 고등직업교육기관을 통한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은 사실 양국 간 관련 기관의 긴밀한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교류·협력은 학생·교수·관련 전문가 등의 인적 교류와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등이 빈번하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즉 상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전제로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5)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한중 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은 양국의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 예컨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산동성 소재 고등직업교육기관이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을 할 경우 활성화가 잘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리적 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와 교류가 활발하였고, 중국의 개혁개발 이후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다. 따라서 산동성의 주요 도시 및 인근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점차 중국의 동부 및 동북부 지역과 중반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국 서부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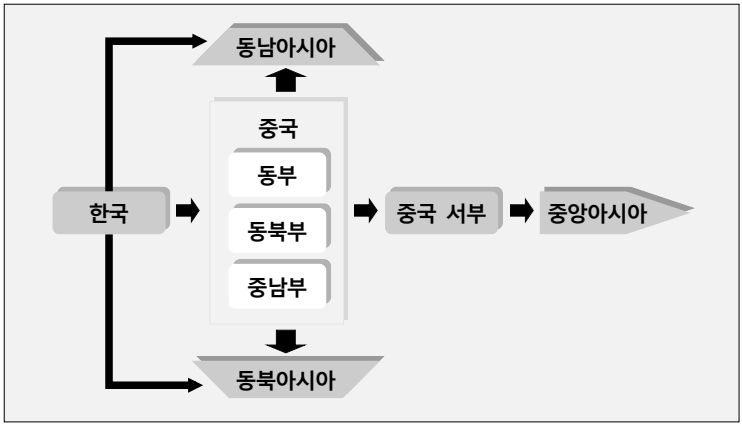
또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8]으로신실크로드 개발 등 서부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도 점진적으로 서부로 확대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로 공동 진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즉, 한중 양국은 인력 양성에서 각국의 중요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공동 인력 양성 분야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8)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를 순방한 후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국무원의 발전개혁위원회에서 관련 청사진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 포럼에서 재차 강조하면서 더욱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중국의 동북부는 동북아시아로 연계시키고, 중국 동남부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연계하여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공동 진출 모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9] 결국 한중 양국은 우선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점차 지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확대 전략은 양국의 국가 거시 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우리의 이니셔티브 정책을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에 적용하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9〉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협력 진출 지역 흐름도(안)



9) 중국은 중국 중서부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남부지역과 동남아를 연계하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 지역 공간을 재편하려는 일대일로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일영, 2015,『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GS&J인스티튜트.

Ⅳ. 주요 방안

1.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 우선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예컨대 산시성의 경우, KOTRA의 자료에 의하면 한중 협력이 유망한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소프트웨어 분야, 환경 분야, 식품 및 제과점 등, 문화서비스 분야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이다. 이 밖에 농산물 가공, 항공 우주, 자원개발 및 가공 등 제조업 분야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한중 유망 협력산업 분야**

분야	내용
부동산 개발	서부 대개발 및 국제화 대도시(시안) 건설 연계
IT, SW, R&D	발달된 연구 성과 및 우수한 인력 활용
농산물 가공	밀, 옥수수, 석류, 키위 등 식품 가공 및 옥수수를 가공한 에탄올 및 바이오 디젤 관련 사업
항공우주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항공기, 인공위성 기술 활용
식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식당, 제과점, 카페 등
프로젝트	환경(오폐수 처리, 토양오염 개선, 탈황 등), CDM(풍력, 태양광에너지) 분야 및 ITS
자원 개발	자원 개발 및 심가공
문화 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제작 등

자료: KOTRA 시안 무역관, 2014, 산시성 동향, KOTRA.

실제 한국 기업들 중 중국 서부에 진출한 기업 및 주요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사업 분야는 다산 네트워크 등 각종

통신설비, 의료장비, 화학분야, 도로 건설에 따른 아스팔트, 바이오 등 녹색 분야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전략적 접근으로 사전에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를 지역별(혹은 성별)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양성 기관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2.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한중 양국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은 우선 양국의 산업 수요에 적합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점차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국 서부 발전을 위한 중국의 전략과 연계하여 공동 인력 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서부대개발이 일대일로 구상과 더불어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충분하고 질 높은 인적자원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의 중요한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산시성의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력의 결합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즉 중국(서부)은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산업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한중 협력이 연구소와 정부 등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한중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은 사전에 충분한 실태 파악과 이를 전제로 한 공동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현재 국내에서 활용 중인 주문식 협약반을 응용하여 국제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현장 실무 중심의 인력 양성 모형을 따르는 것이다. 예컨대 영진전문대에서 운영하는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영진전문대학은 '대기업 주문식 협약반'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취업 확정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SK 하이닉스반, 삼성디스플레이반, LG디스플레이반 등 다양한 기업들과 주문식 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국제연계 주문식 교육'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 및 해외 우수 기업의 필요 인력 및 교육 내용 등을 미리 주문(요구)받고, 특성화된 산학밀착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해외유학생 및 국내 학생의 해외 취업을 추진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주문식 협약반은 중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중국인 학생을 필요로 하는 국내기업과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중국인 학생 양쪽의 수요를 연계시키기 위해 중국의 직업교육기관과 협력을 맺어 중국인 학생을 위탁 교육하는 해외 수출형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이러한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각 지역과 학교 및 기업의 특성에 맞게 응용하여 주문식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전문형 혹은 시범형 학교 설립은 한중 간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전문 혹은 시범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한중 양국 간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양국의 교·강사가 양국의 학생을 분야별로 수요에 맞게 양성하고, 기업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중국 고등직업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2005년 「국무원 직업교육 발전에 대한 결의(国务院关于大力发展职业教育的决定)」에서는 100개의 시범학교를 설립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후 2006년에는 교육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국가시범고등직업학교 건설 계획'의 시행을 선포하고, 정부가 시범학교 설립에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 중심, 정부 지원, 협력 발전'을 원칙으로 100개의 고등직업학교 설립을 지원하며, 전국 고등직업학교와 고등직업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했다. 중국 당국은 이 계획을 통해 국가가 건설한 100개의 시범학교에서는 운영성과와 교학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0년 교육부와 재정부를 통해 「국가 시범형 고등직업학교 건설계획 추진에 대한 통지(关于进一步推进"国家示范性高等职业院校建设计划"实施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이미 설립된 100개의 시범학교에 추가로 100여개의 핵심 고등직업학교들을 선발하여 국가 시범형 고등직업학교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중국 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지원 사업을 한중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전환한다면, 한중 양국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러한 국가 시범형 고등직업학교 건설은 21세기 국가 차원의 대규모 고등직업교육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가속화하고, 학교 운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5.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중국은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는 외자와 외국기업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외국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지방정부의 관심을 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즉,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공동 인력 양성 관련 협력을 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자매결연을 맺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威海) 시 정부는 한국의 직업학교와 협력사업을 통해 소정의 성과[10]를 거두고 있다. 즉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도 이들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혹은 관련 협약을 맺고, 상호 공동으로 인력 양성 및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즉, 자치단체 지역에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과 중국 자매 지방정부 소재 학교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과 협약이 필요하다.

Ⅴ. 결론

이상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 협력 모형과 방안에서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0) 본 사례는 산동성 위해시 교육국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한 자료이다.

첫째,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동안 산업 수요는 중등단계 수준의 인력 수요가 많았지만,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러한 추세는 한국 등 선진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중 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인력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의 당국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나 결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산동성 등 일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은 이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예컨대 맞춤식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 간 공동 양성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이를 공동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점진적 추진 전략이다.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은 초기

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 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여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하는 것이다. 즉,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을 넘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장기적 공동 협력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일규, 2002,「일반시스템이론에 근거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 모형 개발」,『직업능력개발연구』, 제5권 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일규, 2003,「중국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에 관한 고찰」,『중국교육연구』, 2권 1호, pp.19-52.

강일규 · 허영준 · 박병석 · 이천우, 2012,『한 · 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일규 · 허영준 · 김유미 · 이윤진 · 이천우, 2014,『중국 양안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 · 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2012,『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2011,『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 2013,『전문대학 육성방안』, 교육부.

교육부, 2014,『교육통계연보』, 교육부.

김미란, 2013,『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철희 · 혀영준 · 김세종, 2013,『전문대학의 중소기업형 인력양성사업 추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 2011,『공생발전, 함께 가능 따뜻한 사회를 만듭시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동 · 정지선 · 박철우, 2009,『고등교육단계의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희권, 2012,「한국대학의 국제화 방향과 과제」,『고등교육 Issue Paper RM 2012-43-5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상진, 2007,『국제교류 업무 매뉴얼: 최종보고서』, 문화관광부.

이경자, 2013,『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이무근, 1995,「직업기술교육체제 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제5차 정책토

론회자료집』.
이무근, 2004,『직업교육학원론』, 교육과학사.
이승 · 이길순 · 한강희 · 권재길 · 김범국 · 심형수 · 전승환, 2013,『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전문대학 육성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일영, 2015,『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GS&J인스티튜트.
정우현, 1998,『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 전재식 · 황성수 · 김민규, 2013,『정부의 전문대학 지원 정책 진단 및 보완 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2014,『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 방안,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광제, 1998,「유형별 체제이론의 특성과 교육행정에 대한 이들 이론의 시사점」,『교육학 논총』, 제7집.
한국고용정보원, 2012,『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2014,『2014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 · 취업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9, 한국 전문대학 교육 30년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석수, 2013,「전문대학 정책 추진 방향」,『The HRD Review』, 16권 6호.
하연섭 · 박인우 · 이원용, 2014,『국내대학(원)의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질 관리 방안 마련』, 교육부.
한용수, 2014,「한 · 중 교육 교류의 발전」,『한중인문학연구』, 44권, pp.111-130.
히라노 겐이치로, 2004,『국제문화론』, 서울: 풀빛.
KOTRA 시안 무역관, 2014, 산시성 동향, KOTRA.
国家教委职业技术教育司, 1989,『职业技术教育文件选编1978-1988』, 北京: 三联书店, pp. 629-630.
国家教委职业技术教育司, 1997,『职业教育政策法规(1992-1996)』. 北京: 北京师范大学出版社, p. 334.

教育部发展规划司, 2014,『2011-2013年中国教育事业发展统计简况』, 教育部.

教育部职业教育与成人教育司, 2010,『2009年中国职业教育年度报告』, 北京:高等教育出版社.

朴炳奭, 2012,「構建東北亞共同體的方向: 超越文化共同體而走向人類安全共同體」,『當代韓國』, P. 24.

人民教育出版社, 2010,『中国教育统计年鉴 2009』,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人民教育出版社, 2011,『中国教育统计年鉴 2010』,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中国教育年鉴编辑部, 1985,『中国教育年鉴(1982-1984』, 北京: 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1971, *Vocational Technical Terminology*.

Chen, Dong, 2011,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Higher Education Studies* 1(1).

ILO, 1990,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88, Geneva: ILO, pp.2-3.

Joiman Network, 2014, *Guide to developing and running joint* 양쉐펑외, 2014.『핵심산업발전에 관한 산시성직업교육수요분석 및 건의』, 산시성교육과학연구소, http://100.daum.net (검색일: 2018.7.18.).

A Study on the Ways and Model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Vocational College for Training and Application of Industrial Manpower in Korea and China

Kang Il Gyu(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ign models for comm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o meet the demand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The common development models can be established with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i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The study also seeks how to apply the models in their institutes to gain substantial results.

Theoretical backgrounds were discussed by reviewing the literature. From the discussion, the study gained new perspective for this study. The study analyzed current situations of th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in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explored special features of the situations and directions for this study. The study utilizes the features and direction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study also assembled expert opinion in this field. It examined the past discussions and the case studies in the area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rom the opinion collection and the examination, the study found the implications for this study.

The study concluded that we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comm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t th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in Korea and China. The study proposed to create programs for practical comm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o apply the programs to th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of the two nations. The programs need to be supported by specialization strategies. The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progressively to build up mutual trust between the institutes and to produce successful cases. The study suggested that Korea and China can work together in the region such as Southeast Asia with these results.

Key words

vocational colleg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industrial manpowe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uman resources utilization, model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투고일 : 2018. 09. 11 / 심사(수정)일 : 2018. 10. 23 / 게재확정일 : 2018. 11. 05